

博士學位論文

『素問』에서의 天人氣機構造的 인식방법과 의의

최용우·丁彰炫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The two way of perceiving the structure of Qi-system from the viewpoint of So-Mun(素問)

Yong-Woo Choi, Chang-Hyun Jung

Departmen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e idea of Qi(氣) is fundamental to Oriental medical thinking. We can say that everything in the universe is composed of and defined by its Qi. The law of nature can describe the bodily change referred to as the So-Mun(素問). Therefore, we should understand the pattern of Qi in the nature in advance to understand that in the body. We can see how they influence each other after understanding each pattern. There are two way of perceiving the structure of circulating pattern of Qi. First one is to divide the whole Qi-system into two parts, the other one is to divide it into three parts. The example of the former is Yin(陰) and Yang(陽), and that of the latter is Sam-Jae(三才) which means the three orders of heaven, earth and man.

In this paper, I wrote about the meaning of the 'two' and the 'three' which are very important means to explain the world and explain the structure of Qi-system using these numbers and wrote about how we can clinically use this kind of way of explaining Qi in diagnosis and treatment.

Key words : Qi(氣), Su-Wen(素問), Yin(陰) and Yang(陽), Sam-Jae(三才)

의 法으로 成한다.”¹⁾라고 하고, 또 “九竅, 五

I. 序論

『素問』에서 “사람은 天地二氣로 生하고 四時

1)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 『素問·寶命全形論』
본고는 洪元植 校合編纂의 東洋醫學研究院 出版
部の『精校黃帝內經素問』을 底本으로 하고 이하『
素問』으로 약칭

臟, 十二節이 모두 天氣에 통한다.”²⁾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天地自然의 氣로 생성되고, 또 끊임없이 天地自然의 氣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天地自然과 사람의 氣의 흐름, 즉 氣機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한의학의 원리서인 『素問』에서는 이러한 천지 자연과 사람의 氣機에 대하여 陰陽, 天地人三才, 四象, 五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설명방법 중에서 특히 陰陽 二分的 설명방법과 天地人 三才에 의한 三分의 설명방법이 특히 중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먼저 왜 이 두 가지 설명방법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素問』에 나오는 陰陽 二分的 설명방법과 天地人 三才에 의한 三分의 설명방법 및 이들과 관련한 조문을 살펴봄으로써, 이 두 가지 氣機 說明方法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氣機에 대한 二分的 설명방법과 三分의 설명방법의 중요성

천지자연과 인체의 氣機를 陰陽 二分的으로 인식하는 방법과 天地人 三才에 의하여 三分의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먼저 ‘二’와 ‘三’의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二’와 ‘三’의 의미에 대하여 張其成은 “一分爲二”를 黑白, 上下, 正負, 好壞, 明暗, 左右, 大小, 敵我 등을 예로 들어 事物性質(最終性質)에 대한 層次的 철학분석으로 이해하고³⁾, “一分爲三”을 黑灰白, 上中下, 正零負, 好中壞,

明灰暗, 左中右, 大中小, 敵我友 등을 예로 들어 事物存在狀態에 대한 層次的 철학분석으로 이해하여⁴⁾, ‘二’는 兩極, 兩面, 對立, 衝突을 의미하고, ‘三’은 中介, 關係, 和合, 圓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二’를 體로, ‘三’을 用이라고 보는 “二體三用”을 주장하고 ‘五’의 基本數를 ‘三’으로 보고, ‘五’를 “二三”이 相合한 최고의 理想的 模型으로 보았다.

丁彰炫은 『老子·道德經』의 “道生一하니, 一生二하고, 二生三하고, 三生萬物하니라.”⁵⁾는 것으로부터 一은 太極으로 드러나지 않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며, 太極一이 분화되어 二陰陽이 되는데, 음양은 변화의 象은 있으나 아직 形化되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단계이며, 二가 다시 분화하여 三이 되어야 비로소 활발히 운동하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三을 만물이 운동 변화하는 운동력의 기본수라고 하였다.⁶⁾

韓長庚은 天地萬物은 奇偶, 剛柔, 男女, 晝夜, 寒暑, 上下, 進退 등의 陰性和 陽性으로 對待되지 아니한 것이 없으므로 먼저 陰陽의 象을 취하고, 다시 천지만물의 속에서 草木, 鳥獸, 人身 등의 物象을 취하여, 柔順, 止靜, 安定, 承受, 受容, 受動, 包含, 消極, 退屈, 斂藏, 凝結 등의 음성작용과 剛健, 流動, 鼓舞, 發施, 周流, 能動, 奮躍, 積極, 推進, 出顯, 發散 등의 양성작용으로 나누었다.⁷⁾ 이 兩性的 對待가 운동하여 交互로 작용하는 때는 반드시 새로운 一物을 생하여 生生不窮하는 것이니, 對待로부터 운동력이 발생하여 新事物을 생하는 때는 그 數가 三이 되어 ‘三才’의 새로운 象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는 『周易』에서 “天地의 氣가 交密하여 萬物의 氣가 化凝하고, 萬物의 陰陽

2) “九竅, 五臟, 十二節, 皆通乎天氣” 『素問·生氣通天論』

3) 張其成, 論文, 生命的 “二體三用”模型,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TCM, January 1997, Vol.20, No.1, p.24~27

4) 재인용, 前揭書 p.25

5) 老子 著 王弼 注, 老子, 上海古籍出版社, 1989, 上海, p.11

6) 丁彰炫, 論文, “仲景《傷寒論》의 六經實質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 1994

7) 韓長庚 著 : 易學原論, 1954, p.21~49

性이 精을 相交하여 形을 化成한다”⁸⁾고 한 것에 근거하여, 陰性和 陽性이 相交하여 후계자를 생하는 것이 모두 삼재의 道라고 주장하고, 이를 時間的, 立體的, 縱的 의미의 三索의 象⁹⁾과 平面的, 橫的의 의미인 三極의 道¹⁰⁾로써 나누어 설명하였다.

龐朴은 ‘一’이라고 하는 것은 內部에 복잡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한 복잡함을 ‘二’라고 하였으니, ‘二’로써 開始한다고 하지 않고 ‘一’이 開始한다고 하여야 한다고 하고, ‘二’는 ‘一’의 內部에 구비되어 있는 兩性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고, 開始를 실현하고 개시를 완성함을 의미하는 것은 ‘三’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三’은 ‘一’의 ‘三’이고 ‘三’으로 이루어진 ‘一’의 의미이지, ‘三’으로 분리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다.¹¹⁾

그러므로 ‘一’, ‘二’, ‘三’은 각각으로 분리된 의미보다는 상관관계에 의하여 보다 쉽게 이해되고 정의되며, ‘二’가 ‘一’의 내부의 대대적 운동력의 인식이라면, ‘三’은 ‘一’의 ‘二’로 표현된

대대적 운동력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五’가 ‘二’와 ‘三’이 결합된 의미의 수이므로 ‘五’ 이상의 수의 의미는 ‘二’와 ‘三’의 중복 결합으로 이루어진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一’의 전체로부터 변화의 기본수는 ‘二’와 ‘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지자연과 인체의 기기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인식의 개념인 ‘二’와 구체적 변화의 실현을 의미하는 ‘三’을 가장 기본적인 氣機의 분화 단위로 보아야 한다.

2. 『素問』의 天人氣機構造에 관한 두 가지 認識方法

1) 二分的 설명방법

「陰陽應象大論」¹²⁾에서 輕淸한 陽의 氣가 위로 모여 天이 되고, 重濁한 陰의 氣가 아래로 모여 地가 된다고 한 것이 천지자연의 기기를 이분구조로 인식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하의 이분구조에 의하여 기는 상하의 승강운동을 갖게 된다. 아래의 地氣가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위의 天氣가 내려오면 비(雨)가 되는 것이니, 비는 천기가 중탁하여져 하강하는 것이고, 구름은 지기가 경청하여져 상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분구조에 있어서 기는 하나다. 천기와 지기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다만 기가 청탁으로 인하여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청탁은 고정불변의 의미가 아니고 변화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결국 청탁의 변화가 기의 상하승강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청한 기가 모인 천에서도 다시 중탁한 기로 변화하기에 기의 하강이 일어나고, 중탁한 기가 모인 지에서도 마찬가지로

8) “天地絪縕，萬物化醇，男女構精，萬物化生”『周易·繫辭下傳』

9) “천지가 相交하여 物을 생하는 순서는 一索하여 雷風의 氣를 得하니 이를 人事에 擬하여 장남·장녀라 하고, 再索하여 水火의 精을 得하니 이를 人事에 의하여 중남·중녀라 하고 三索하여 山澤의 形을 得하니, 이를 人事에 의하여 소남·소녀라 하니 이것을 三索이라 한다. 이처럼 兩性의 氣가 相感하고 다음에 兩性의 精이 相聚하고, 그 다음에 精과 氣가 相應하여 新物의 形을 생성하는 것을 三索의 象이라고 하였다.” 韓長庚 著：易學原論, 1954, p.21~49

10) “천지인의 三才에서 幽와 明은 地의 晝夜의 兩極이오, 死와 生은 人의 一生의 兩極이오, 鬼와 神은 天의 造化의 兩極이며, 또 陰과 陽은 天의 道의 兩極이오, 柔와 剛은 地의 道의 兩極이오, 仁과 義는 人의 道의 兩極이니 物의 運動이 천지인의 각 兩極의 사이를 왕래하는 것을 三極의 道라 하고, 氣와 氣의 相感, 精과 精의 相聚, 氣와 精의 相合에 관하여 平面的, 橫的으로 干涉한다고 하였다.” 韓長庚 著：易學原論, 1954, p.21~49

11) 龐朴 著：一分爲三, 海天出版社, 1995, p.56~114

12) “淸陽爲天，濁陰爲地。地氣上爲雲，天氣下爲雨，雨出地氣，雲出天氣。”『素問·陰陽應象大論』

경청한 기로 변화하기에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하승강의 기의 순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천지자연의 上下二分 구조의 기기인식을 인체의 기기구조에 적용하여 인체에 있어서의 청정한 陽氣는 上竅로 나가고 중탁한 陰氣는 下竅로 배출되며, 淸淨한 陽氣는 腠理에 發하며 濁한 陰氣는 五臟으로 走하며, 淸陽은 四肢를 實하게 하고 濁陰은 六腑로 歸한다고 하였다.¹³⁾ 천지자연의 이분구조와 마찬가지로 인체를 상규와 하규, 주리와 오장, 사지와 육부로 청기와 탁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上下二分 구조에서 다시 방위를 음양으로 나눈 개념으로 세분하면 경청한 양기가 많은 동남방이 천기가 많고 중탁한 음기가 많은 서북방이 지기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에서 좌측의 이목이 총명하고 우측의 수족이 강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⁴⁾

이러한 이분구조의 반복은『周易』¹⁶⁾에서 太極이 兩儀를 生하고 兩儀가 四象을 生하고 四象이 八卦를 生하는 전개방식과 동일한 구조로서 분화이전을 1로 하고 1에서 대비적 개념의 數인 2를 나누고 2의 각각의 1에서 다시 對待的 개념의 數인 2를 分化시킴으로써 1-2-4-8...의 분화양식을 갖는 인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체에서는 상하를 나누고, 다시 좌우를 나누고, 다시 전후를 나누고, 다시 표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무한한 이분구조의 대대적 개념의 인식이 가능한 것이다.

2) 二分 氣機構造의 의의

인체 기기를 천지자연의 二分 氣機構造를 통하여 인식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이분적 인식방법에 의하여 인체 내의 모든 변화를 이분대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對比에 의한 구분 후에 다시 對待的 이분을 진행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上下를 구분하고 上을 左右로 다시 구분하는 것을 음양이라는 부호로 표시하면 上은 下에 대비되어 陽의 부호로 표시 되는데, 이미 陽으로 표시된 上의 左側은 陰方인 우측에 대비하여 陽으로, 右側은 陽方인 좌측에 대비하여 陰으로 다시 구분하는 것이다.

둘째, 천지자연의 二氣의 승강으로 인체 내에서 기의 상하승강에 의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동남방은 양으로 하여 천기가 많고 서북방은 음으로 지기가 많은 것으로부터 인체에서 양기가성한 頭部에서는 좌측의 기능이 발달하고 음기가성한 身部에서는 우측의 기능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셋째, 모든 氣를 淸濁에 의하여 천기, 지기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인체를 頭身으로 상하를 나누었다.

천지자연에서 경청의 기가 위로 상승하여 천이 되고, 중탁의 기가 아래로 하강하여 지가 되듯이, 인체에서는 청기인 양기는 상부인 頭로 상승하고, 탁기인 음기는 하부인 身으로 하강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頭(體)-陽氣-耳目(用)-聰明, 身(體)-陰氣-四肢(用)-淸弱의 구조로 볼 수 있다.

인체기기의 이분구조는 대비개념과 대대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자연과 인체의 모든 현상을

13) “故淸陽出上竅，濁陰出下竅，淸陽發腠理，濁陰走五臟，淸陽實四肢，濁陰歸六府。”『素問·陰陽應象大論』

14) “天不足西北，故西北方陰也，而人右耳目不如左明也。地不滿東南，故東南方陽也，而人左手足不如右強也。”『素問·陰陽應象大論』

15) “東方陽也，陽者其精并於上，并於上，則上明而下虛，故使耳目聰明，而手足不便也。西方陰也，陰者其精并於下，并於下，則下盛而上虛，故其耳目不聰明，而手足便也。故俱感於邪，其在上則右甚，在下則左甚，此天地陰陽所不能全也，故邪居之。”『素問·陰陽應象大論』

16) “是故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八卦定吉凶，吉凶生大業。是故法象莫大乎天地，變通莫大乎四時，繫象著明莫大乎日月。”『周易·繫辭傳』金敬琢 譯註，周易，明文堂刊，1971

이분적 인식방법으로 분류하였으니, 이는 주희¹⁷⁾가 만물에 드러나는 규율들이 동일한 보편원리의 통일성이 있다고¹⁸⁾ 한 것과 같이 자연과 인체의 현상을 하나의 공통원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 만물의 생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그러나 장재¹⁹⁾가 다만 氣가²⁰⁾²¹⁾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써 기의 변화를 설명하였던 것과 다르게 天地二氣의 승강운동을 설명하고 이와 상응하여 인체기기는 頭身을 경계로 하여 음양기의 승강운동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하의 승강은 張²²⁾이 黑白, 上下, 正負, 好壞, 明暗, 左右, 大小, 敵我 등의 事物性質(最終性質)을 음양으로 귀결한 것과 같이 천지자연의 기기에 있어서는 상하의 승강운동

이 일어남으로써 다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지이기의 상하승강운동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일어나고, 이러한 상하승강의 기 순환에 의하여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하의 운동은 기준이 정해짐²³⁾에 의하여 표리, 좌우, 전후의 구분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리, 좌우, 전후는 상하승강의 운동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三分의 설명방법

『六微旨大論』²⁴⁾에서 天樞의 위는 天氣가 主하고 天樞의 아래는 地氣가 主하고, 천기와 지기가 교차하는 곳은 人氣가 從하니, 萬物이 이로부터 말미암아 生한다고 한 것이 천지자연의 기기를 삼분구조로 인식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분구조가 기를 청탁으로 나누어 기기의 구조와 기의 운동을 설명하였다면, 천기, 지기, 인기의 삼분구조는 萬物 생성의 緣由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천지자연의 구조는 변함없이 상하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기기를 구성하는 기는 상하청탁의 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천기와 지기가 교감하여 이루어진 人氣가 더하여진 것이다.

人氣는 천기와 지기가 교감하여 섞여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분기에서 기는 청탁에 의하여 경중을 달리하여 가벼우면 위로, 무거우면 아래로 이동하여 안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삼분의 기기에서는 경중이나 청탁을 구분하기보다는 다른 성질로 대비되는 두 가지의 기가 맞닿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루고

17) 朱熹(朱子, 1130년~1200년) : 중국 宋代의 유학자로 자는 元晦·仲晦, 호는 晦庵·晦翁·雲谷山人·滄洲病·遜翁이며, 이름은 熹로서 출생지는 중국 福建省 尤溪이다. 주요저서로 『論語要義』, 『論語訓蒙口義』, 『困學恐聞編』, 『程氏遺書』, 『論孟精義』, 『資治通鑑綱目』, 『八朝名臣言行錄』, 『西銘解義』, 『太極圖說解』, 『通書解』, 『程氏外書』, 『伊洛淵源錄』, 『古今家祭禮』, 『近思錄』, 『論孟集註或問』, 『詩集傳』, 『周易本義』, 『易學啓蒙』, 『孝經刊誤』, 『小學書』, 『大學章句』, 『中庸章句』, 『釋尊禮儀』, 『孟子要路』, 『禮書·儀禮經傳通解』, 『韓文考異』, 『書傳』, 『楚辭集註後語辨證』 등이 있다. 또한 朱在가 편찬한 『朱文公文集』(100권, 속집 11권, 별집 10권)과, 문인과의 문답을 수록한 黎靖德 편찬의 『朱子語類』 140권이 있다. (www. encyber.com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검색어-朱熹)

18) “理只是這一箇, 道理則同, 其分不同.” 『朱子語類』 黎靖德 編, 허택 이요성 옮김, 朱子語類 1·2, 도서출판 청계, 1998, 卷6, p.99

19) 張載(張橫渠, 1020~1077) 중국 北宋 중기의 학자로 호는 橫渠, 본명은 載, 자는 子厚이다. 출생지는 장안(長安)이며 주요저서로는 『經學理窟』, 『正蒙』, 『西銘』이 있다. (www. encyber.com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검색어-張橫渠)

20) “太虛無形, 氣之本體, 氣聚氣散, 變化之客形爾” 『正蒙·太和』 張子全書(四部備要 五十六冊), 北京, 中華書局, 1989, 卷2, p.11 上

21) 前掲書, p.11 下: “太虛不能無氣, 氣不能不聚而爲萬物, 萬物不能不散而爲太虛”

22) 張其成, 論文, 生命的 “二體三用”模型,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TCM, January 1997, Vol.20, No.1, p.24~27

23) 기준의 의미는 인식의 주체가 생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4) “何謂氣交? 上下之位, 氣交之中, 人之居也. 故曰: 天樞之上, 天氣主之; 天樞之下, 地氣主之; 氣交之分, 人氣從之, 萬物由之. 此之謂也.” 『素問·六微旨大論』

자 하였다. 경정한 기증의 상대적으로 증탁한 기와 증탁한 기증의 경정한 기는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구분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경정한 천기의 제일 아래 부분은 조금만 더 증탁해지면 하강해서 지기가 되는 상태이고, 증탁한 지기의 가장 윗부분은 조금만 더 경정해지면 상승해서 천기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는 서로 잘 섞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天元紀大論」²⁵⁾에서 하늘에 있어서는 氣가 되고 땅에 있어서는 形을 이루어 形과 氣가 서로 感應하여 萬物을 化生한다는 것은 결국 천기의 가장 아래 부분과 지기의 가장 윗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人氣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人氣는 천기인 氣와 지기인 形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천지자연의 天地人三分 구조의 기기 인식을 인체의 기기구조에 적용하여 「三部九候論」²⁶⁾에서는 인체를 上, 中, 下 三部로 나누고, 部를 다시 각각 三候로 나눔으로써 청기, 탁기의 이분기와 달리, 기를 청기, 탁기, 청기와 탁기가 뒤섞인 기로 분류하는 삼분기기로써 인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체의 臟을 다섯의 神臟과 넷의 形臟이라고 하고, 神臟의 변화는 色의 변화를 통하여 드러

나는 것을 밝히면서도 形臟에 대한 내용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은 삼분기기의 9候구조에 상응하기 위하여 9臟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至眞要大論」²⁷⁾에서 인체의 상하의 구분을 천지와 지기가 만나는 중간지점을 의미하는 天樞로써 한다고 하였으니 인체기기의 변화가 천기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면 天樞의 上部에 먼저 드러나고 지기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면 天樞의 下部에서 먼저 드러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天元紀大論」²⁸⁾에 寒暑燥濕風火를 天의 陰陽이라고 하고 木火土金水를 地의 陰陽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천기는 陰陽氣의 消長變化로써 六氣로써 드러남을 의미하고 지기는 形의 盛衰變化²⁹⁾로서 五運으로 드러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天地二氣의 교감으로 이루어진 인체의 기기를 「六微旨大論」³⁰⁾에서는 氣의 出入과 升降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체 內의 氣는 결국 천기와 지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천지자연의 기기에서 일어나는 天地二氣의 순환에 맞춰 인체 내외로 순환하는 것을 출입이라고 하고, 이러한 인체 기기는 천지자연의 기기에서 일어나는 순환과 같은 형식의 상하 승강의 순환운동도 또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기의 출입이 그

25) “夫變化之爲用也，在天爲玄，在人爲道，在地爲化。化生五味，道生智，玄生神。神在天爲風，在地爲木；在天爲熱，在地爲火；在天爲濕，在地爲土；在天爲燥，在地爲金；在天爲寒，在地爲水。故在天爲氣，在地成形，形氣相感而化生萬物矣。”『素問·天元紀大論』

26) “願聞天地之至數，合於人形血氣，通決死生，爲之奈何？天地之至數始於一，終於九焉，一者天，二者地，三者人，因而三之，三三者九，以應九野。故人有三部，部有三候，以決死生，以處百病，以調虛實，而除邪疾。何謂三部？有下部，有中部，有上部，部各有三候。三候者，有天，有地，有人也。必指而導之，乃以爲眞。三部者，各有天，各有地，各有人。三而成天，三而成地，三而成人。三而三之，合則爲九，九分爲九野，九野爲九臟。故神臟五，形臟四，合爲九臟。五臟已敗，其色必夭，夭必死矣。”『素問·三部九候論』

27) “氣之上下何謂也？身半以上其氣三矣，天之分也，天氣主之。身半以下，其氣三矣，地之分也，地氣主之。以名命氣，以氣命處，而言其病。半，所謂天樞也。”『素問·至眞要大論』

28) “上下相召奈何？寒暑燥濕風火，天之陰陽也，三陰三陽上奉之。木火土金水，地之陰陽也，生長化收藏下應之。天以陽生陰長，地以陽殺陰藏。天有陰陽，地亦有陰陽。木火土金水火，地之陰陽也，生長化收藏，故陽中有陰，陰中有陽。”『素問·天元紀大論』

29) 鄒學熹 主編，醫學匯通，四川科學技術出版社，1997, p.6

30) “出入廢則神機化滅，升降息則氣立孤危。故非出入，則無以生長壯老已，非升降，則無以生長化收藏。是以昇降出入，無器不有。故器者，生化之宇，器散則分之，生化息矣。”『素問·六微旨大論』

친다는 것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명활동이 그치게 되는 것이고, 승강이 그친다는 것은 四時陰陽의 消長으로 이뤄지는 천지자연의 기기의 변화에 인체기기가 상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天地人 三分의 氣機構造는 『주역』³¹⁾의 삼재와 같은 구조의 인식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 천지자연을 天道, 地道, 人道の 三分 氣機構造보았다. 『주역』에서의 ‘道’의 개념은 ‘一陰一陽之謂道’³²⁾라고 한 것으로부터 음양의 소장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삼분구조의 분화는 분화이전을 1로 하고 1에서 음양의 소장변화로 이루어지는 氣機를 3으로 나누고, 각각의 기기를 다시 천지인으로 나눔으로써 1-3-9의 분화양식을 갖는 인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체를 상중하를 나누고, 다시 각각에서 상중하를 나눔으로써 인체 內의 氣의 위치에 따른 天地二氣의 속성과 천지자연 기기와와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이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4) 三分 氣機構造의 의의

인체 기기를 천지자연의 三分 氣機構造를 통하여 인식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삼분적 인식방법에 의하여 천기와 지기로부터 인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三分氣機는 천기와 지기 외에 천기와 지기가 맞닿은 면에서 생기는 人氣를 二分氣機의 개념에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러한 人氣는 새로운 氣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기와 지기로 분리되어 존재하여야 했던 氣가 하나로 합쳐진 개념일 뿐이다. 그러

므로 人氣는 천기와 지기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氣와 다르게 천기와 지기의 음양적 속성이 내재되어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분기기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만물의 생성은 천기와 지기의 결합으로써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인체의 氣機를 독립적인 기기로 인식함으로써 천지자연의 기기의 상응하여 유래된 변화와 인체기기 자체에서 유래된 변화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천지자연의 氣機가 천기와 지기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천기와 지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人氣로 생성된 인체의 기기는 천지자연과 마찬가지로 天地二氣의 기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천지이기의 기기를 둘로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천지자연에서의 기기로서 천지이기의 교감으로 만물을 생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지이기의 교감으로 이루어진 인기에 내재하는 천지이기의 기기이다. 이에 의하여 천지자연의 기기에 상응하는 기의 출입이 있게 되고, 인체기기 자체의 기의 승강이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天地二氣가 맞닿은 곳에서 二氣交感으로 만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天樞를 중심으로 윗부분의 천기와 아랫부분의 지기가 경계를 이룬다고 보았다.

二分氣機에서는 청탁으로 나누어진 氣가 頭身을 경계로 하여 승강의 운동변화가 일어나지만, 三分氣機에서는 天樞를 경계로 하여 天地二氣의 氣交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분기기에서 淸濁의 輕重으로만 인식되었던 천지이기의 개념이 天地二氣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人氣를 더함으로써 人身上下의 중간을 의미하는 天樞가 새로운 경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三分構造는 천지자연과 인체기기의 상응 및 인체의 독립적인 氣機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자연과 인체의 현상을 하나의 일관된 원

31) “易之爲書也，廣大悉備，有天道焉，有地道焉，有人道焉。兼三材而兩之，故六，六者，非它也，三才之道也。”『周易·繫辭下傳』

32) “一陰一陽之謂道”『周易·繫辭上傳』

리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5) 二分構造와 三分構造의 비교고찰

『素問』의 인체기기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방법은 이분구조와 삼분구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분구조가 천지자연의 기기를 천기와 지기의 청탁으로 상하를 인식한 것으로부터 인체를 頭身으로 이분하여 輕滯의 陽氣와 重濁의 陰氣가 승강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삼분구조는 천지자연의 기기를 천기와 지기에 天地二氣가 결합된 人氣를 더하여 상중하의 삼분으로 인식한 것으로부터 인체를 天樞로 이분하여 윗부분의 천기와 아랫부분의 지기가 닿아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분구조는 이분적 인식의 방법으로써 음양기의 소장에 따른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內外, 表裏, 寒熱, 前後, 臟腑의 음양적 속성에 따른 변화³³⁾와, 四時변화에 따른 五臟의 陰陽氣 消長³⁴⁾과 12經絡의 음양기 多少³⁵⁾ 등을 人體 內的 음양기의 消長으로는 설

명할 수 있었다. 다만 천지이기의 변화에 의한 인체기기 변화의 구체적 원인설명과 변화결과에의 예측에는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삼분구조에서는 인체 내의 陰陽氣의 消長에 의한 변화보다는 천지이기의 消長에 따른 인체 陰陽二氣의 消長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五運六氣의 변화에 따른 天地二氣의 변화와 그것이 만물의 화육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인체기의 변화에 의한 질병발생의 차이를 밝힘³⁶⁾으로써 天地二氣의 변화와 인체 陰陽二氣의 변화간의 상관관계와 변화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체의 기기를 이분구조와 삼분구조로 인식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인체를 頭身의 上下二分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① 천지자연의 기기는 천기와 지기로 이루어진다.

천지자연의 기는 청탁으로 나누어지는데, 청한 기는 가벼워 상승하여 천기가 되고 탁한 기는 무거워 하강하여 지기가 된다.

② 인체의 기기는 양기와 음기로 이루어진다.

인체의 기는 천기와 같은 경청한 양기와 지기와 같은 중탁한 음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기는 頭로 상승하고, 음기는 身으로 하강한다.

③ 천지자연과 인체의 기기는 기의 승강운동이 이루어진다.

기의 청탁은 변화하는 것으로 경청한 천기가 중탁해지면 하강하여 지기가 되고, 중탁한 지기가 경청해지면 상승하여 천기가 된다.

④ 인식방법은 1-2-4-8-16-32-64...의 분화형식을 갖는다.

분화이전을 1로 본다면 대비적 개념으로 2로 분화하고, 2로 분화된 각각을 대대적 개념

33) “聖人南面而立，前曰廣明，後曰太衝，太衝之地，明曰少陰，少陰之上，名曰太陽。太陽根起於至陰，結於命門，名曰陰中之陽。中身而上，名曰廣明，廣明之下名曰太陰，太陰之前，名曰陽明 陽明根起於廣兌，名曰陰中之陽。厥陰之表，名曰少陽，少陽根起於厥陰，名曰陰中之少陽。…外者爲陽，內者爲陰，然則中爲陰。其衝在下，名曰太陰，太陰根起於臆白，名曰陰中之陰。太陰之後，名曰少陰，少陰根起於湧泉，名曰陰中之少陰。少陰之前，名曰厥陰，厥陰根起於大敦，陰之絕陽，名曰陰中之絕陰。”『素問·陰陽離合論』

34) “肝主春”“心主夏”“脾主長夏”“肺主秋”“腎主冬”『素問·藏氣法時論』

“帝曰五藏應四時，各有收受乎”，“東方青色，入通於肝，……藏精於肝”，“南方赤色，入通於心……，藏精於心”『素問·金匱真言論』

“中央黃色，入通於脾，……藏精於脾”，“西方白色，入通於肺，……藏精於肺”，“北方黑色，入通於腎，……藏精於腎”『素問·金匱真言論』

35) “夫人之常數，太陽常多血少氣，少陽常少血多氣，陽明常多氣多血，少陰常少血多氣，厥陰常多血少氣，太陰常多氣少血，此天之常數。”『素問·血氣形志論』

36) 素問運氣七篇.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至真要大論」

으로 4로 분화하고, 다시 8과 16으로 이분적인 분화형식을 전개하게 된다.

⑤ 천지자연과 인체의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이분의 대비와 대대 개념을 인식의 방법으로 하여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⑥ 남녀의 구분과 선천적인 기능의 강약을 설명할 수 있다.

이분개념의 속성으로 남녀의 음양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고, 천지이기의 성쇠로써 인체의 음양이기의 품부의 성쇠를 설명할 수 있다.

⑦ 천지자연과 인체의 기기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천지자연과 인체의 기기는 상응하지만 각각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천지자연의 기기의 원리로써 인체기기의 원리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천지이기의 영향을 직접 설명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인체를 天樞의 上中下 三分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① 천지자연의 기기는 천기와 지기, 그리고人氣로 이루어진다.

천지자연의 기는 경정한 천기와 중탁한 지기와 천지이기가 결합된人氣로 나누어진다.

② 인체의 기기도 천기, 지기,人氣의 이루어진다.

천지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체에서도 천기, 지기, 인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천기와 지기로 나눌 수 있다.

③ 천지자연의 기기는 승강운동이 이루어지고, 인체의 기기는 출입과 승강운동이 이루어진다.

천지자연의 기기는 천지이기의 승강운동만 있을 뿐이지만, 인체기기에서는 독립된 기기로서 천지자연과 같은 승강운동과 출입운동이 함께 일어난다.

④ 인식방법은 1-3-9의 분화형식을 갖는다.

분화이전을 1로 보고 대비개념의 2에 대비개념의 경계면을 의미하는 1을 더하여 상증하의 3으로 분화하고, 다시 각각 상증하로 3분하여 9로 3분하는 분화형식을 갖는다.

⑤ 천지이기의 만물생성을 설명할 수 있다.

천지이기가 합쳐진 개념인人氣를 도입함으로써 천지이기로부터 만물의 생성이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⑥ 천지자연의 기기로부터 초래된 인체의 異常徵候와 인체기기로부터 초래된 인체의 異常徵候를 설명할 수 있다.

인체기기의 異常을 기의 출입에 의한 것인지, 기의 승강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⑦ 기의 변화를 천지자연의 기기의 승강과 인체기기의 승강출입으로 설명한다.

천지자연의 기기와의 단순한 비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천지이기의 승강운동에 의한 인체기기의 변화와 독립된 기기으로써 천지자연의 기기와의 상관관계에 의한 변화를 기의 승강출입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3. 기기인식에 따른 내용 이해의 實例

천지자연과 인체의 氣機構造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의해 천인상응의 의미가 달라짐을 알게 되었다. 이에『소문』의 같은 내용을 이분구조적 인식방법과 삼분구조적 인식방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의 목적은 인식의 차이가 내용의 이해에 어떻게 영향하는가? 를 살펴, 인식의 중요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1) 「氣交變大論」의 例

“本은 氣의 位이다. 천기의 변화는 천문이 되고, 지기의 변화는 지리가 된다. 이러한 천기와 지기의 변화에 의한 인체의 기의 변화를 人事라 한다.”³⁷⁾

37) “本氣位也。位天者，天文也，位地者，地理也，通于人氣之變化者，人事也。”『素問·氣交變大論』

“本은 氣의 位이다.”라는 것은 해당 年의 육기와 오운의 종류와 태과불급에 달려 있다³⁸⁾는 것이다. 天地二氣의 태과불급에 따른 인체 내의 기의 변화를 人事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분 기기구조의 인식으로 본다면, 천기와 지기의 태과불급에 따라 인체에서는 陰陽二氣의 승강변화가 초래되어 身部の 陰氣와 頭部的 陽氣가 虛하거나 盛하여져 ‘腹脹滿’이나 ‘不知人’의 증상을 갖게 된다.³⁹⁾ 이분 구조의 기기에서도 삼분 구조의 기기와 같은 오운육기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천지자연의 만물생성을 천지이기의 기교와 같이 직접설명하지 못함으로써 人身의 상하부로 직접 작용하지 못하고 다만 천지자연의 기기변화에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삼분 기기구조의 인식으로 본다면, 이분 구조의 기기에서의 인체 내의 陰陽二氣의 승강에 의한 上下陰陽氣의 盛과 虛뿐만이 아니라 天地二氣의 出入에 의한 變化도 함께 일어나고,⁴⁰⁾ 또한 천지자연의 氣機와 인체기기의 상관관계에 의한 변화도 나타나게 된다.⁴¹⁾⁴²⁾

38) 任應秋 著, 李宰碩 譯, 運氣學說, 東文選, 1994, pp.92-94

39) “陰氣盛於上, 則下虛, 下虛則腹脹滿, 陽氣盛於上, 則下氣重上, 而邪氣逆, 逆則陽氣亂, 陽氣亂則不知人也.”『素問·厥論』

40) “甲己之歲, 土運統之, 乙庚之歲, 金運統之, 丙辛之歲, 水運統之, 丁壬之歲, 木運統之, 戊癸之歲, 火運統之.”『素問·天元紀大論』

“子午之歲, 上見少陰, 丑未之歲, 上見太陰, 寅申之歲, 上見少陽, 卯酉之歲, 上見陽明, 辰戌之歲, 上見太陽, 巳亥之歲, 上見厥陰. 少陰所謂標也, 厥陰所謂終也.”『素問·天元紀大論』

“厥陰之上, 風氣主之, 少陰之上, 熱氣主之, 太陰之上, 濕氣主之, 少陽之上, 相火主之, 陽明之上, 燥氣主之, 太陽之上, 寒氣主之. 所謂本也, 是謂六元.”『素問·天元紀大論』

41) “夫五運之化, 或從天氣, 或逆天氣, 或從天氣而逆地氣, 或從地氣而逆天氣, 或相得, 或不相得.”『素問·六元正紀大論』

42) “凡此太陽司天之政, 氣化運行先天, 天氣肅, 地氣靜. 寒臨太虛, 陽氣不令, 水土合德, 上應辰星鎮

2) 「天元氣大論」의 例

“氣의 多少와 形의 盛衰가 상하에서 정해지면 損益이 드러난다.”⁴³⁾

천지자연의 기기에서 기는 청탁에 의하여 나누어지는데, 가벼운 청기는 상승하여 천이 되고, 무거운 탁기는 하강하여 지가 된다. 이러한 천에서의 陰陽氣의 消長變化는 六氣로써 드러나고, 지에서의 形의 盛衰變化는 五運으로 드러나므로 육기와 오운을 알게 되면 천지이기로 인한 손익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분 기기구조의 인식으로 본다면, 천지자연의 기기가 상하로 이분되어지는 것처럼 인체의 기기도 이분되어지는데, 頭身으로 상하를 나누게 된다. 그러므로 육기의 음양소장의 변화는 인체의 上部인 頭部的 陽氣에서 음양소장의 변화를 초래하고, 오운의 형의 성쇠의 변화는 下部인 身部的 陰氣의 성쇠변화를 초래하게 된다.⁴⁴⁾

星. 其數玄齡, 其政肅, 其令徐. 寒政大舉, 澤無陽燄, 則火發待時. 少陽中治, 時雨乃漚, 止種雨散, 還於太陰, 雲朝北極, 濕化乃布, 澤流萬物. 寒數于上, 雷動于下, 寒濕之氣, 持於氣交, 民病寒濕, 發肌肉萎, 足痿不收, 濡寫血溢. 初之氣, 地氣遷, 氣乃大溫, 草乃早榮, 民乃厲, 溫病乃作, 身熱, 頭痛, 嘔吐, 肌腠瘡瘍. 二之氣, 大涼反至, 民乃慘, 草乃遇寒, 火氣遂抑, 民病氣鬱中滿, 寒乃始. 三之氣, 天政布, 寒氣行, 雨乃降, 民病寒, 反熱中, 癰疽注下, 心熱脅悶, 不治者死. 四之氣, 風濕交爭, 風化爲雨, 乃長, 乃化, 乃成, 民病大熱少氣, 肌肉萎足痿, 注下赤白. 五之氣, 陽復化, 草乃長, 乃化, 乃成, 民乃舒. 終之氣, 地氣正, 濕令行, 陰凝太虛, 埃昏郊野, 民乃慘悽, 寒風以至, 反者孕乃死.”『素問·六元正紀大論』

43) “氣有多少, 形有盛衰, 上下相召, 而損益彰矣.”『素問·天元紀大論』

44) “寒暑燥濕風火, 在人合之, 奈何? 其於萬物何以生化?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其在天爲玄, 在人爲道, 在地爲化, 化生五味, 道生智, 玄生神, 化生氣. 神在天爲風, 在地爲木, 在體爲筋, 在氣爲柔, 在藏爲肝. 在性爲暄, 其德爲和, 其用爲動, 其色爲蒼, 其化爲榮, 其蟲毛, 其政爲散, 其令宣發, 其變摧拉, 其眚爲隕, 其味爲酸, 其志爲怒. 怒傷肝, 悲勝怒; 風傷肝, 燥

삼분 기기구조의 인식으로 본다면, 천지이기의 교감으로 생성되는 만물은 무리마다 생육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인체기의 승강과 출입운동이 변화하게 된다.⁴⁵⁾⁴⁶⁾

3) 질병의 이해와 치료에의 활용

천지자연과 인체의 기기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과 치료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이분구조의 기기에 있어서 문제는 기의 청탁과 승강에 있고, 삼분구조의 기기에 있어서 문제는 기의 청탁과 출입승강에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기의 청탁과 승강, 그리고 출입으로 나누어진다.

기의 청탁은 인체에 있어서 양기와 음기가 된다. 양기란 청기로서 두부의 五臟 竅의 기능의 강약으로 허실을 알 수 있고, 음기란 탁기로서 신부의 五臟의 脈으로 精의 허실을 알 수 있다.

기의 승강은 사시음양의 음양기의 소장변화에 따른 인체 내의 기의 生, 長, 化, 收, 藏의 변화다. 그러므로 사시변화에 합당한 인체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로써 질병이 생기게 된다.

기의 출입은 독립적인 기기로서 이루어지는 호흡과 식이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서의 천지자연 기기의 영향

으로 일어나는 生, 長, 壯, 老, 已의 변화다. 천지자연 기기의 영향이란 인체기기의 내부적 원인이 아닌 모든 원인의 氣 순환의 異常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으로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면 된다.

기의 청탁에 속하는 것이라면, 인체기기의 상하 음양기의 허실을 치료하면 된다. 인체 내의 기는 위치에 따라 음양기로 나누는 것이므로 기를 청하게 하거나 탁하게 하는 것이 음양기의 허실을 바로잡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내용은 「陰陽應象大論」⁴⁷⁾에서 참고할 수 있다.

기의 승강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변화는 사시음양의 음양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체 기의 상승과 하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 인체 내의 기는 상승하면 다시 하강하여야 하고, 하강하면 다시 상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氣交變大論」⁴⁸⁾에서 참고할 수 있다.

기의 출입에 속하는 것이라면, 천지자연의 기기로부터 독립적인 機器로서 천기와 지기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인체라는 것이 천지이기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천지이기가 인체기기 내로 계속 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활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至眞要大論」⁴⁹⁾에서 참고할 수 있다.

勝風；酸傷筋，辛勝酸。”『素問·五運行大論』

45) “敷和之紀，木德周行，陽舒陰布，五化宣平，其氣端，其性隨，其用曲直，其化生榮，其類草木，其政發散，其候溫和，其令風，其藏肝，肝其畏清，其主目，其穀麻，其果李，其實核，其應春，其蟲毛，其畜犬，其色蒼，其養筋，其病裏急支滿，其味酸，其音角，其物中堅，其數八。”『素問·五常致大論』

46) “出入廢，則神機化滅；升降息，則氣立孤危。故非出入，則無以生，長，壯，老，已，非升降，則無以生，長，化，收，藏。是以升降出入，無器不有，故器者，生化之宇，器散則分之，生化息矣。故無不出入，無不升降。化有大小，期有近遠。四者之有，而貴常守，反常則災害至矣。故曰 無形無患，此之謂也。”『素問·六微旨大論』

47) “故因其輕而揚之，因其重而減之，因其衰而彰之。形不足者，濫之以氣；精不足者，補之以味。其高者，因而越之；其下者，引而竭之；中滿者，瀉之於內；其有邪者，瀆形以爲汗；其在皮者，汗而發之；其標悍者，按而收之；其實者，散而瀉之。審其陰陽，以別柔剛，陽病治陰，陰病治陽，定其血氣，各守其鄉。血實宜決之，氣虛宜掣引之。”『素問·陰陽應象大論』

48) “夫五運之政，猶權衡也，高者抑之，下者舉之，化者應之，變者復之，此生長化成收藏之理，氣之常也，失常則天地四塞矣。故曰天地之動靜，神明爲之紀，陰陽之往復，寒暑彰其兆。此之謂也。”『素問·氣交變大論』

49) “高者抑之，下者舉之，有餘折之，不足補之，佐以

예1) 권◎◎, 여, 6세

症狀; 呼吸困難 (X-ray上 아데노이드 비대)

病機; 병원에서 아데노이드 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한 상태에서 래원함. 잦은 소염항생제의 투여로 식욕부진도 나타남.

인체 내의 음양이기의 승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降濁과 升淸을 되살려야 한다고 봄. 重濁한 陰氣를 上升하려면 溫하여야 하고 輕淸한 陽氣를 下降하려면 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溫中之劑를 기본으로 하고 진액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淸하는 의미로 생지황과 맥문동을 가하였다.

處方; 5회 투여(1회 3첩 분량임) (단위 g)

백출(微炒) 34

황기(微炒) 41

백복령 8

자감초 8

육계 6

진강(炒) 2

당귀(酒炒) 40

생지황 28

진피 6

목향 8

맥문동 7

경과; 호흡곤란 소실(아데노이드비대 소실)

예2) 이◎◎, 남, 5세

所利, 和以所宜, 必安其主客, 適其寒溫, 同者逆之, 異者從之. 帝曰: 治寒以熱, 治熱以寒, 氣相得者逆之, 不相得者從之, 余以知之矣. 其於正味何如? 岐伯曰: 木位之主, 其瀉以酸, 其補以辛. 火位之主, 其瀉以甘, 其補以鹹. 土位之主, 其瀉以苦, 其補以甘. 金味之主, 其補以酸. 水位之主, 其瀉以鹹, 其補以苦. 厥陰之客, 以辛補之, 以酸瀉之, 以甘緩之. 少陰之客, 以鹹補之, 以甘瀉之, 以鹹收之. 太陰之客, 以甘補之, 以苦瀉之, 以甘緩之. 少陽之客, 以鹹補之, 以甘瀉之, 以鹹軟之. 陽明之客, 以酸補之, 以辛瀉之, 以苦泄之. 太陽之客, 以苦補之, 以鹹瀉之, 以苦堅之, 太厲之. 開發腠理, 致津液通氣也.”『素問·至眞要大論』

症狀; 高熱(41.2°C), 眼充血, 耳發熱

病機; 인체 내외로의 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봄. 진신 핫팩으로 發汗하여 玄府를 開함으로써 鬱熱을 解하고 갈근과 승마로 陽明의 열을 泄하고 陰液의 부족을 염려하여 백작약과 황금을 가하여 치료함.

處方; 진신핫팩, 升麻葛根湯加 黃芩(2첩)

(단위 g)

갈근 8

백작약 4

승마 4

감초 4

황금 2

薑 3쪽

蔥 2뿌리

경과; 고열 해소

III. 結論

천지자연과 인간의 氣機를 『素問』을 통하여 二分構造와 三分構造의 두 가지 관점으로 인식방법과 의의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一’, ‘二’, ‘三’은 각각으로 분리된 의미보다는 상관관계에 의하여 보다 쉽게 이해되고 정의되는 것으로, ‘二’가 ‘一’의 내부의 대대적 운동력의 인식이라면, ‘三’은 ‘一’의 ‘二’로 표현된 대대적 운동력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五’가 ‘二’와 ‘三’의 결합된 의미의 數인 것처럼 ‘一’, ‘二’, ‘三’ 이외의 數는 ‘二’와 ‘三’의 중복 결합으로 이루어진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一’의 전체로부터 변화의 기본수는 ‘二’와 ‘三’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천지자연과 인체의 기기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인식의 개념인 '二'와 구체적 변화의 실현을 의미하는 '三'을 가장 기본적인 氣機의 분화 단위로 볼 수 있다.

2. 천지자연의 氣機가 二分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氣를 淸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가벼운 淸氣가 상승하여 天을 이루고, 무거운 濁氣가 하강하여 地를 이루어 상하 이분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의 청탁의 변화에 의한 승강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천지자연의 기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천지자연의 천지를 인체기기의 상하를 頭身으로 하였다. 따라서 頭에는 인체의 陽氣가 모이고, 身에는 陰氣가 모이게 된다. 그러므로 인체에서는 음양이기의 승강으로 변화를 설명하게 되었다.
3. 천지자연의 氣機가 三分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氣를 天氣, 地氣, 人氣로 구분하는 것이다. 기는 청탁의 천지이기일 뿐이지만, 천기와 지기가 교감하여 人氣가 이루어진다. 이로써, 청탁으로 분리되었던 기가 人氣의 의미로 하나로 합쳐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천지이기의 결합은 천지자연의 기기 내에서 만물의 생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천지자연의 기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체를 천지이기의 氣交 중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기기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인체의 기기의 변화는 한편으로 외부 천지자연의 기기와 동일한 형식으로 승강하면서 동시에 상호 교류한다고 볼 수 있다.
4. 天人氣機의 이분구조는 氣를 對比와 對待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모든 현상을 기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지만, 청탁의 二氣로 상하 분리되어 천지자연의 만물생성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삼분구조는 氣를 천기와 지기에 천기와 지기가 합쳐진 개념의

人氣를 더함으로써 만물생성과 인체의 독립적 기기를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의 氣는 天地二氣일뿐이므로 인체의 모든 현상을 天地人 三氣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 이러한 기기구조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은 천지자연과 인체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체기기의 기의 승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인체와 자연기기간의 상관관계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기의 변화를 기로써 표현하면 청탁의 승강과 인체 내외의 출입으로 요약된다.

참고문헌

1. 洪元植 編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2. 張載 : 張子全書(四部備要 五十六冊), 北京, 中華書局, 1989
3. 金敬琢 譯註 : 周易, 서울, 明文堂刊, 1971
4. 黎靖德 編, 허택 이요성 옮김 : 朱子語類 1·2, 성남, 도서출판 창계, 1998
5. 小野澤精一 外 2人, 李慶 譯 : 氣的思想,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0
6. 鄒學熹 主編 : 醫學匯通, 四川,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97
7. 任應秋 著, 李宰碩 譯 : 運氣學說, 서울, 東文選, 1994
8. 龐朴 著 : 一分爲三, 深圳(中國), 海天出版社, 1995
9. 高懷民 : 邵子先天易哲學, 台北市, 台北市各大書局, 中華民國85
10. 韓長庚 著 : 易學原論, 서울, 1954
11. 老子 著 王弼 注, 老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12. 仲景『傷寒論』의 六經實質에 關한 研究 :

丁彰炫, 慶熙大學校, 1994

13. 生命的“二體三用”模型 : 張其成,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TCM, January 1997, Vol.20, No.1

